

사설

동국대 건학 백주년 준비에 부쳐

8월 1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 5백대 명문대학이 나온다. 일본의 도쿄대가 19위, 교토대가 30위, 오사카대가 53위이다. 중화권에선 타이완대가 190위, 칭화대가 248위, 베이징대가 287위 등 6개 대학이 포함되었으며, 한국에선 서울대 163위, 연세대 300위, 포항공대 322위, 한양대 408위, 고려대 412위 등이 들어 갔다. 자료는 상하이 교통대학교 등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다. 동국대학이 건학 100주년 기념 D-1000일 행사를 8월 12일 학교 불상 앞에서 거행한다고 한다. 이 행사를 통해 백주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건학 백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동국대의 새로운 탄생, 역사 창조에 대한 한 마음의 참

어'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 동국대학이 지향하는 비전과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학교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희망 찬 내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건학 백주년 기념 백만 등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일산 불교병원 개원을 비롯한 어려움이 차체에 해결의 실마리를 집었으면 한다. 불교계 최고의 대학으로 근대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 상대적인 발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이 대학은 잠자고 있었다. 부처님처럼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

대선공약은 '관통' 되어야 한다

공론조사는 방법을 통해 북한산 관통 서울의관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폐기되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공약일지라도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아직 없다.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면, 불교인들을 선거 때의 표로만 보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후의 양심으로서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종교인들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며,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불교지도자들이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은 당대는 물론 후손들이 향유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토록 하기 위한 현대의 고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의 쟁점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의 효율성을 우선에 둘 것이냐의 것이다. 그런데 공론조사를 통해 노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의 진원지가 될 소지가 높다.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싸움을 벌이고 이긴 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 '제2창학' 정성 모은다

'D-1000, 백만등 달기' 운동

최초의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동국대 전신)가 문을 연 것은 1906년 5월 8일이었다. 당시 학교설립의 주축을 담당했던 불교연구회가 각 도의 수(首)사찰에 보낸 통문을 보면, 추락한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불교 중흥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학교 설립을 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건학 100주년(2006년 5월 8일)을 맞아 '제2의 창학'을 내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가 100년 전 실시일반으로 힘을 보태던 불교계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으고 도약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건학 100주년 D-1000, 백만등 달기' 운동의 선포식을 12일 오후 6시부터 명진관 앞 불상 주변에서 갖는다.

'D-1000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00인 1000등 100만등 달기' 운동 선포식 등으로 이어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000명 페넨트 테이프 커팅'이다. 건학 10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간다

100주년 사업에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페넨트 테이프 커팅과 동시에 불상 주변에 설치된 1000개의 연등에 불이 밝혀져 여름 밤을 밝힐 예정이다. 1000개의 등등은 개인이

업분부장은 "지금까지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신 분들의 뜻을 기릴 방법이 없었지만 100만등 달기에 동참해 발전기금을 내신 분들은 명패를 제작해 정각원이나 만불전에 보존함으로써 그 뜻을 기릴 생각"이라며 "100만등 달기 운동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100일마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 1천억원 모금 계획

생각바꾸기 '동국비전' 의견 수집도

는 의미를 담은 페넨트 테이프 커팅은, 학과·부속 기관·연구소·행정기관 등 290여개 기관의 대표 1000명이 각 학과(기관)의 이름이 들어간 페넨트를 자르는 행사. 테이프 커팅 후 페넨트는 해당 기관에서 2006년까지 보관함으로써

나 단체가 한 개씩 밝힌 100만 개의 연등을 통해 1천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야심 찬 계획의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다. D-1000일 이전 참여자는 12일 행사에 연등을 밝힐 수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 최창선 사

관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원혜스님 징계요청 결의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

조계종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7월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특위조사를 거부해 온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해 중앙총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조사특위는 또 다음 중앙총회에 봉은사 조사결과를 보고한 뒤 특위를 해산키로 했다. 봉은사 조사특위는 지난 8개월여 동안 봉은사 감사를 벌였으나 봉은사의 감사 비협조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 7월초 조사 특위 소위원회에서 총무원 집행부의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몽산스님 새주지 선임

대흥사 산중총회 열어

조계종 22구 분사 대흥사는 7월30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목출마한 몽산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몽산스님은 1951년 생으로, 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2년 화엄사에서 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1년 법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9년 화엄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98년 대흥사 부주지, 99년 제12대 중앙총회위원을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주지소임 맡기 더 어려워졌다

조계종 3급승가고시 입방전·산림후 두차례

조계종에서 주지 소임 맡기가 더 어려워졌다. 첫 관문인 3급 승가고시가 한결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베)은 7월 29일 고시위원회를 열어 제3차 3급 승가고시 시행일자와 시험과목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승가고시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의 3급 승가고시를 입방 전 1차 고사와 산림 후 2차 고사, 두 차례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한 점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10월 1~7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제3회 3급 승가고시산림 기간 중 1일 입방 전 1차 고사, 산림

과정을 마친 후 6일 2차 고사를 치르게 된다. 1과목을 선택하면 됐던 시험 과목도 늘었다. 1차 고사는 소의경전인 <금강경>(전체 공통, 주판식)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하며, 2차 고사도 <육조단경>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등 15개 중 3개 과목

(논술식)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전행근 차장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 이상 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주지 소임을 맡을 수 있고 상좌를 둘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자격도 생긴다. 또 종단 내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평불협대표 4~12일 방북

평양 법운암 단청불사 입재법회등 참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다, 평불협) 대표단이 평양 법운암 단청불사 등을 위해 방북한다. 8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방북하는 평불협 대표단은 4박 5일 동안의 입재법회 공식일정 외에도 사리원 금강곡수공장, 개성 영통사 불사 현장, 개성지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법운암 개금불사는 김성호 불교미

술관장의 기술지원과 후원으로, 성불사 개금불사는 나기태 회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방북인원은 회장 법타스님 외 정인익 이사장, 임대운 대구 동구정장, 김성호 개금전문가, 김성룡 단청기술사 등 총 10명이다. 한편 평불협은 보다 나은 통일교육 환경과 돈독한 불심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사상을 실

고침

본지 431호 26면 '차맥지킴이' 기사 가운데 국내 20개 지부를 201개로 고칩니다. 432호 2면 사설 중 광주 실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로, 4면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을 현웅스님으로, 8면 하리샤 리아게를 하리샤리아나게로 고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터넷: www.buddhanews.com. 대표전화: 02-737-8881.

2003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수련대회. 인사말씀. 종단의 위상제고와 대승종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 2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애증지님(愛宗之念)으로 종단 발전에 물심양면 기여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대자비의 원력을 내시어 수회동참으로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중앙총의회·각 지방총무원·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철 혜심 합장.